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사고·비리 일룩 '한빛 원전'

1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광주·전남의 진산(鎭山)이자 '어머니의 산'인 무등산이 지난 3월 4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은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5년 만이다. 국립공원 승격에 따라 무등산의 관리·감독을 정부(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맡게 됐으며, 관리 인원과 예산도 국립공원 시절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선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2017년까지 총 972억원을 투입해 무등산 보호 시설 등을 확충하는 한편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74%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를 주제로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2 나로호 발사 성공

1단은 러시아, 2단은 국산 기술로 제작된 나로호(KSLV-1)가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2009년 1차·2010년 2차 발사 실패와 2번에 걸친 발사 연기 등 고난 끝에 포기하지 않고 얻어낸 값진 성과다. 나로호의 성공으로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 위성을 개발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우주센터·우주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으로 인정 받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순수' 국산 기술로만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나로우주센터는 오는 201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국형 발사체의 엔진·연소 시험 설비가 확충되고 있다.

3 세계 수영대회 유치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시를 선정·발표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전세계 200여개국 2만여명이 참가해 26일 동안 펼쳐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경제 효과면에서도 올림픽 등에 버금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다만, 유치 발표 당일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가해진 공문서가 FINA에 제출했다는 이른바 '공문서 위조 논란'이 터지면서 오점을 남겼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으며, 여야 국회의원 154명은 공동발의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4 영암 F1 내년 대회 중단

2014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F1 코리아 그랑프리 가 지난 5일 최종 연기됐다. 이로써 지난 2010년부터 4차례 대회를 개최하면서 1900억원대에 달하는 적자 논란을 낳았던 F1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 연기된 가장 큰 이유는 전남도와 F1 운영사인 FOM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개최권료 인하를 주장했고, FOM은



무등산이 지난 3월 4일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국립공원 신규 지정은 1988년 변산반도·월출산 이후 25년 만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최권료 인하 불가 방침과 그동안 10월에 열렸던 한국대회를 4월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2015년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F1 운영사인 FOM과 처음부터 개최권료 협상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대회 재개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다.

5 5·18 왜곡·왜곡 시도 중단 촉구

5·18 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3년이 지났지만 '5월 역사 왜곡·왜곡'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5·18 역사왜곡 움직임은 정부가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새로운 주모곡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검증된 사실까지 건드리며 역사를 왜곡하는 보수 인터넷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의 왜곡시도가 가세했고 '역사 교과서 논쟁'이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역사 왜곡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와 압박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6년4개월 만에 미납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제3차 추징이 가능해진 것도 환수를 도왔다.

6 조선대 이사회 파행

조선대학교가 1년 가까이 이사회 부존재 상태를 면

치 못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연임 욕심 탓에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아 학내외 거센 비난을 샀다. 이사회 사태는 결원이사 선임 시 정관에 의해 개방이사를 뽑아야 하지만 일반이사를 선임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일부 이사가 법원에 선임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 결정 이후 교육부가 결원이사 몫으로 뽑은 신입이사를 소송결과 이후 처리하는 대신, 나머지 8명의 차기 이사진 구성을 촉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강경책을 제시한 상태다. 오는 2014년 1월13일 열린 이사회의 결정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 원전 비리 및 잇단 고장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원전 시험 성격서 위조 부품 파장은 한빛(영광) 원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빛 원전의 경우, 위조 부품 511개(56개 품목)가 확인되면서 지역민들의 원전 거부감을 부채질했고, 잦은 고장은 물론 허가받지 않은 재질을 이용해 증기발생기를 점검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면서 원전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2.6% 늘리는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발표, 폐쇄적 운영

방식 개선과 안전 대책을 먼저 요구했던 지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충분한 소통과 합리적 대안 제시가 없는 한 '원전 반대' 여론은 내년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 기아차 62만대 증산 합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종웅)은 올해 설립 이래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6월 노사가 합의한 62만대 증산은 기아차 광주공장이 기아차를 대표 공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광주 핵심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09년 32만여대를 생산하던 광주공장은 불과 4년 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게 됐다. 1998년, 트럭·버스를 생산하며 연산 6만대에 그치던 공장에서 기아차 대표 생산기지로 거듭난 것. 62만대 생산 가동으로, 광주공장은 지난 11월 공장이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월 생산 5만대를 기록했다. 광주 자동차산업의 내년 매출액도 15조3266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22.3% 가량 상승이 예상된다.

9 순천만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올해 전남지역의 낭보 중 하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월 20일~10월 20일)의 성공이었다. 국토 낭만



나로호가 지난 1월 30일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가 지난 6월 62만대 증산에 합의해 설립 이래 가장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순천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44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외형적으로 성공을 거뒀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몰창하고 아름답게 자리잡는 정원의 특성상 정원박람회장은 폐막 이후에도 지역 관광명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내년도 재개장을 통해 관람객을 맞고, 순천시도 생태관광 허브로 키운다는 장기 계획도 세우는 등 사후활동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곳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0 안철수 독자 세력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올해 국내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에는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출범시키고 새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하며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신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실행위원들을 인선하며 사실상 정치세력화에 나섰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당 행보를 본격화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세몰이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 신당'의 한바탕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